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이 단일화 ‘스타트’

〈강운태·이용섭〉

주중 TV토론회…주말 여론조사…28일까지 후보 발표

선택 6·4 지방선거 D-15

파란 세몰이 안간힘

세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강운태·이용섭 후보가 이번 주중 TV토론회를 거쳐 주말에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강운태·이용섭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양 후보 진영은 현재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양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는 24~25일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 측은 “주말에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주말 정도가 여론조사를 하기 적당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주 주말과 휴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까지 여론조사를 해 27~28일 단일후보를 발표하면 사전투표(30~31일)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양 후보 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운태·이용섭 후보는 오는 21일 저녁 10시 KBS 생방송 집중토론회에 출연할 예정이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윤장현·강운

태·이용섭 후보 3명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윤 후보는 출연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KBS의 3자 토론은 모든 (광주시장)후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거절했다”면서 “법정 TV토론회는 당연히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BS는 윤 후보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무소속 단일후보 여론조사에 앞서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광주지역 각계 인사 30여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강운태 후보는 세정치민주연합의 밀실야합 낙하산공천 후보를 심판하고 시민의 승리를 담보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강 후보를 시민후보로 추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 시민 2만9814명이 추대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광주 지능대표 64명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장은 광주 정신과 가치를 살리고 명예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용섭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을 섬길 줄 알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광주시민의 열정과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이용섭 후보야말로 전환기의 광주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시장 후보”라고 말했다.

/최원익기자 cki@kwangju.co.kr

“해경 해체·민간참여 진상조사”

박대통령 세월호 담화…안행부·해수부 조직 대폭 축소

與 “책임 통감 사과” 野 “소통없는 담화” 엇갈린 반응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구난 등 핵심기능을 새롭게 설치할 국가안전처로 이관,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수준의 조직축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해경의 해체와 관련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

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간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식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간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알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해경의 해체와 관련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

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련의 개혁안을 내놓은 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충분한 국민적 합의나 소통이 없는 담화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

치며 사라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켜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훈 대변인은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눈물의 의미마저 깎아내리는 야당의 비정함에 비례를 느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도 ‘관피아’ 천국

〈관료+마피아〉

광주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3분의 1이 공무원(공기업 포함)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도 비중은 광주보다 낮지만 몇몇 공기업 및 출자기관 대표이사나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해 임명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광주의 경우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43개 기관에 근무하는 임원 106명 중 31%인 33명이 공무원 출신이다. 여성부 차관과 행정부시장, 시의회 사무처장 출신 등 고위공무원

부터 실·국장, 서기관, 사무관, 공기업 중 간간부 출신 등이 주요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다.

전남의 경우 출연기관 19곳 중 퇴직 공직자가 수장인 곳만 5곳에 이른다. 이들 기관 수장은 모 공단 이사장, 전남도청 간부, 산업부와 환경부 국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들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할 동종인 대부분의 수장이 업무와 연관성이 깊고 전문가 출신이며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많게는 1억3000만원, 적게는 7000만~8000만원대 연봉은 물론 매달 수백만원 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 3분의 1이 공무원 출신

준의 업무추진비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이 굵지 않다. 이들이 거액의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관(官)과 출자·출연기관의 유착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부 간부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통상 2~3년으로, 민선 자치 이후 전문성이나 업무성과보다는 단 체장에 대한 충성도나 인사 적체 해소 차원에서 임명이 결정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탑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7명 사망 287명
 ※ 세월호 참사 34일째
 19일 오후 8시 현재 ▶ 관련기사 7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OSHIN UNIVERSITY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6·4 지방선거 표발 점검
 전남도지사 ▶ 4면
 여수시장 ▶ 11면
 보성군수·고흥군수 ▶ 12면



LIRIKOS

MARINE COLLAGEN V AMPOULE

ANTI-WRINKLE SPECIAL PROGRAM

마린콜라겐으로 팍 차오르는 피부- 고농축 탄력 앰플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

주름만 큼이나 심각한 피부노화의 징조는 바로 탄력저하-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은 농축하고 농축한 입도적 함량의
마린콜라겐이 무너진 피부에 힘있는 탄력을 채워드립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세뽀로 피부이력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권장치 분량: (주)리리코스 대표 고객 서비스 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